

캐나다 총리 파룬따파 전파 23주년을 축하

2015 년 5 월 13 일은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세상에 널리 전해진지 23 주년이 되는 날이다.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파룬따파 협회에 파룬따파 전파 23 주년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 파룬따파협회에서 공법과 ‘쩐싼런(眞·善·忍)’의 이념을 캐나다 국민들과 함께 나눈데 대해 찬양했다. 아래는 축하서신의 번역문이다.

총리 축하서신:

저는 매우 기쁜 심정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세상에 널리 전해진지 23 주년 기념일을 경축하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열렬한 문안을 드립니다.

이 특수한 시각에 세계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파룬따파가 가져다주는 복을 돌출이 나타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쩐싼런(眞·善·忍)’ 원칙의 전파를 통해 캐나다 민중들은 파룬궁수련에대해 충분히 접수 합니다. 저는 캐나다 파룬따파협회에서 당신들의 공법을 캐나다 국민들과 함께 나눈데 대해 찬양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아주 행운스럽게 하나의 세계 많은 문화와 종교를 충분히 접수하는 국가에서 생활할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종교자유, 인권과정치의 본보기로 공인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주 기쁘게 정식으로 종교자유 판공실 성립을 통과시켜 전 세계에 캐나다의 이런 가치관을 널리 전하려 합니다.

캐나다정부를 대표한 저의 가장 진지한 축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경축활동이 아름답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우의와 선의의 영원이 영원할것을 기원합니다.

총리 스티븐 하퍼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 부르며 불가상승의 수련방법으로서 우주의 최고특성 ‘쩐싼런(眞·善·忍)’에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더욱 높은 층차에로 능히 수련할수 있게 한다. 1999년전, 파룬궁이 신기하게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는 사람들의 깊은 애대를 받아 중국대지에 널리 전해졌으며 국가 여러부문의 표창과 많은 매체의 찬양을 받았다. 여러차례 민의 조사가 증명하는바 파룬궁 수련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할



왼쪽: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오른쪽: 캐나다 하퍼 총리가 보내온 파룬따파 전파 23 주년 축하서신

뿐만아니라 또한 사회적 도덕승화에 매우 큰 작용을 이 르켰다.

23년전 5월13일,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선생님께서 길림성 장춘시에서 제1기 파룬궁 학습반을 열어 ‘쩐싼런(眞善忍)’을 근본지도로 사람에게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도록 가르쳐 근본상에서 병을 제거하고 신심을 정화시키게하여 한갈래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길을 가르쳐 주시여 파룬따파(法輪大法)가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신기한 공법의 효율로 인해 짧디짧은 몇년내에 수련자가 1억이 되었다.

2000 년 5 월, 이 대법이 세인들에게 전해진 위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각지 파룬궁수련생들은 5 월 13 일을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정할것을 창의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 파룬궁수련생과 선량한 민중들은 매년 이 날을 모두 경축하여 파룬따파가 생명에게 주는 희망과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다.

현재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100여개 나라와 지구에 널리 전해 졌으며 각나라,각급 정부의 표창, 지지의안, 지지편지 3000 여개를 수여 받았다. 그때문에 파룬궁 창시인도 사람들이 깊은 애대를 받고 있다. 이는 중국 텔레비, 신문에서 한 왜곡선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신이 보호해줄 것이다

[밍후이왕]나는 베이징시 미원현 쥐거장읍 농민인데 올해 57 세다. 손자가 둘이 있는데 큰 손자는 8 살로서 소학교 1 학년에 다니고 둘째 손자는 두 살 반이다. 2014 년 11 월 5 일, 나는 하교시간을 맞춰 전동 농업용차에 둘째 손자를 태우고는 큰 손자를 데리러 갔다. 데리고 나온 후 나는 두 손자를 리어카에 앉히고는 그들보고 잘 앉으라고 한 다음 차 운전전에 전념했다.

갑자기 큰 손자가 “할아버지, 둘째가 떨어졌어요”라고

외쳤다. 당시 차를 세울 겨를도 없이 뒤를 돌아봤는데 차에는 큰 손자만 앉아있었다. 즉시 차를 세우고 보니 둘째 손자는 우리와 30 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에 서 있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안아보니 몸에는 상처 하나도 없었고 다만 놀라서 울고 있었다. 이때 작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차 안의 기사가 머리를 내밀고는 말했다. "나는 두 눈으로 금방 장면을 목격했는데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 애는 참 운이 좋았어요. 당신 집에서 큰 덕을 쌓았네요 .(뒷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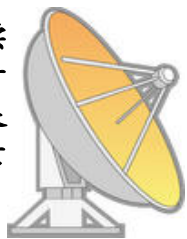
(앞면의 계속) 이 애가 어떻게 길옆에 떨어지게 됐죠?"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얼마 전에 한 파룬궁 수련생이 나에게 진상을 알려준 것이 생각났다. 나보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기억하면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었는데 당시 나는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에 가입했던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서 진정으로 믿으면 정말로 신이 보호해 줍니다. 나는 그 기사한테 "리홍쯔 사부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파룬따파 사부님이 저의 둘째 손자를 구해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둘째를 차에 앉히고는 큰 손자에게 왜 동생을 잘 돌보지 않고 차에서 장난쳤는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훈계했다. 큰 손자는 말했다. "할아버지, 둘째가 떨어질 때 큰 손이 둘째를 떠받쳐 올리는 것을 보았어요" 큰 손자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리 스승님이 나의 손자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됐다. 격동돼서 큰 소리로 연달아 "리 스승님, 감사합니다. 리 스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산당이 월급을 준다”는 잘못 된 생각에 관해

讀者來信



[밍후이왕] 나는 대륙 공민이다. 헌법은 나에게 언론자유를 권리를 부여했다. 오늘 나는 한 두 가지를 말해 보겠다. 나는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말할 때 늘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을 발견했다

“공산당이 당신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데 당신은 또 공산당을 반대하는가?”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다면 당신은 월급을 받지 말아야지!” 이러한 말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공산당이 월급을 준다”는 것은 틀린 인식이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사람마다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게 돼 있다. “양로 연금”도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권리 중 하나이다. 바로 중공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가 뒤늦게 설립 됐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실업을 당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정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양로 연금”을 발급받게 된 것도 노동자 자신이 요구하고 노력한 결과이며 또 세계적 압력과 시대발전의 필연이다.

공산당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도 아닐뿐더러 더욱이 과학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발명창조도 하지 않는데 그것의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 백성들 (납세인) 돈이 아니란 말인가?

공산당이 백성의 돈을 빼앗고 있는 것이지 공산당이 백성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한 무리의 전문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는 당도들을 키워냈다. 이런 정당은 실은 검은 패거리이다. 우리는 검은 무리의 착취를 당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문/스엔) ◇



연변박해소식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림봉련은 박해 중 세상을 떠다

[명후이왕 2015년 4월 30일](명후이왕 통신원 길림보도)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퇴직 교사 림봉련은 2015년 4월 25일 박해 중에서 한을 품은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다. 그의 남편 박세호(朴世浩)는 연변대학 의학원 교수로서 2002년 8월 21일에 연길시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2002년 남편이 박해로 사망된 후 림봉련 노인은 극도로 공포와 그리움에 빠졌지만 곤란한 나날에도 그는 남편이 걸은 길이 제일 광명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고,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효력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의 병이 모두 없어졌다. 그는 “만약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까지 지탱하지 못했을 거요.”라고 말했다. 림봉련 노인도 다른 파룬궁수련생들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구도에 노력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림봉련이 주민층집에 파룬궁 진상 전단지 붙이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발당해 여러 명 경찰에 납치됐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녀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중풍 진단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림봉련은 생활상 자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정황에서도 소재지 파출소인 신흥파출소에서는 계속 소란을 피웠고, 파룬궁수련생이 방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를 도와주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그의 집에서 쫓아냈다. 그녀의 자녀들도 모두 신변에 있지 못했는데 림봉련의 이후의 어려운 생활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고독과 그리움으로 그의 상황은 더욱 엄중해져 겨 2015년 4월 25일에 한을 품은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다

박세호는 연변대학 의학원의 교수로서 그는 덕이 많고 위망이 높은 노학자였는데 재능이 있고 전업수준이 있는 분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수많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이미 곳곳에 제자들이 있다. 그의 과학연구 성과는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까지 있다. 1994년 8월 20일 박세호 교수는 운 좋게도 리홍쯔(李洪志)사부님께서 친히 설법하고 공을 전하는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파룬따파 찐싼런(真善忍)을 수련하는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길을 걷게 되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후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신심의 수익을 얻은 박세호 교수는 줄곧 민중들에게 파룬궁진상과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진정한 목적을 폭로하였다. 2002년 박세호는 민중에게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운남(云南)에서 악인들에게 납치돼 연길시 국보경찰에게 끌려 연길로 돌아와 연길시 구치소에 규정기한을 초과해 수개월 간 감금당했다. 구치소에서 박세호 교수는 자신의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사악한 경찰들의 잔혹한 학대를 받아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져 2002년 8월 21일에 연길시 구치소에서 박해로 세상을 떠다.

중공당국이 소식을 엄밀히 봉쇄했기에 노교수가 도대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후에 구치소에서 박 교수를 만나본 적 있었던 파룬궁수련생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신과 육체상의 박해로 빼만 앙상했고 신체가 왜소했으며, 얼굴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